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3호 【루게 제24716호】 주제 103 (2014)년 10월 30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의 검열 비행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의 검열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들이라고 못내 자랑스러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어 훈련에 동원된 추격기 550호 좌실에까지 몰소 오르시어 전투기술적자원들을 하나하나 료해하시며 추격기 비행사의 비행중대장과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거듭 만족해하시면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

오일정동지, 한광상동지가 동행하였다.

항공군중장 장동운동지가 맞이하였다. 훈련에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제447군부대, 제458군부대가 참가하였다.

비행훈련은 도로비행장에서의 리착륙비행과 공중목표포착비행, 특수기교비행순서로 진행되였다. 오늘 진행된 훈련에서 전투비행사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평시에 련마한 높은 비행술을

남김없이 보여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비행훈련을 보시고 매번 느끼는것이지만 우리 비행사들이 비행기를 정말 잘 탄다고, 나라의 영광을 지키고있는 저 미더운 전투비행사들은 모두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품에 안아 사랑과 정으로 키우신 금싸래기와 같은 자신의 전우들, 사상과 신념이 그 누구보다 강한 불사조

군부대, 제447군부대, 제458군부대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으며 높은 비행술을 보여준 비행대대장들인 김현웅, 강경철, 김창호, 신태섭동무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한등급의 높은 군사칭호를 수여하시는 최상의 믿음을 알려주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의 검열 비행 훈련을 지도 하시였다



1 번 에 서 계 속

가치 대책적문제들을 토의하시고 김정은동지의 훈련지도도 또다시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는 경애하는 어도 언제나 백전백승만을 아로
항공군의 싸움준비완성에서 나 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조선인 최고사령관동지의 승고한 의도 새기는 하늘의 결사대, 불패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 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 를 심장깊이 새기고 당의 의도대 김정은비행대로 더욱 억세계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결방도와 새로운 과업들을 제시 군부대, 제 447군부대, 제 458군 로 강도높은 비행훈련을 생활화 준비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성원들과 하시였다. 부대 전투비행사들은 불철주야 해나감으로써 결전장에 나서면 었다.

현대전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항공군의 싸움준비완성을 위하여 그 어떤 공중비적들과 맞다들
본사정치정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단군릉을 현지지도하신 20돐 기념보고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전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단군릉을 현지지도하신 20돐 기념보고회가 2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와 김용진 내각부총리, 단군릉유적관리소를 비롯한 민족유산보호부문과 편관부 문 일군들, 종업원들, 과학, 교육,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교원, 연구사, 기자, 편집원, 대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가 정중히 전달하였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빛내여 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당의 민족유산보호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총정의 결의로 가슴 불태웠다.

김용진내각부총리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83(1994)년 10월 29일 단군릉을 현지지도하신 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의 원칙,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유산보호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를 빛내어나가는데서 전환적의의를 띠는 력사적사변이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단군릉이 훌륭하게 개건된것은 우리 민족의 대경사이라고 하시면서 령의 보존관리와 참관보장사업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 민족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며 민족의 우수성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혁명명도의 전기간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중시하시고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어 반만년의 민족사를 옹호로 정립해 주신 위대한대원수님들의 승고한 뜻에 떠 받들려 일떠선 단군릉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셔야 민족의 력사가 빛나는 진리를 새겨 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업적이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적로작으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로작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을 일관성있게 견지하며 민족유산보호와 관련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 민족적특성과 감정을 정서에 맞게 풀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사적이 갖는 대상들부터 복구부원하며 유적유물을 개건, 보수관리하는 사업을 년차별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갖는 창조물들과 미풍향속을 귀중히 여기고 시대적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력사박물관을 비롯한 력사교양거점들을 더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며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과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깊이 새기고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순결한 광심을 다 바쳐나감으로써 당과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은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제 103 (2014)년 10월 24일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단군릉을 현지지도하신 20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단군릉개건을 유훈관철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었습니다. 장군님께서 1994년 10월 29일 새로 훌륭히 개건된 단군릉을 돌아보시면서 후대들에게 물려줄 국보인 단군릉을 잘 꾸리고 보존관리하며 역사유적유물들을 더 많이 발굴하여 민족문화유산들을 풍부히 하고 그것을 옹계 계승발전시켜나갈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단군릉이 웅장하게 개건됨으로써 우리 민족이 단군을 원시조로 하여 인류문명의 려명기로부터 한강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이으며 단일민족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뚜렷이 확증되고 온 겨레를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민족의 성지가 일떠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큰 경사이며 주체적인 민족유산보호정책의 빛나는 승리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중시하시고 여기에 힘을 넣으시어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온 세상에 빛내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체적인 예지와 주체적안목으로 대국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에 의하여 외곡되고 복잡하게 엮혔던 역사문제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어 우리 나라가 인류문화발상지의 하나라는것을 확증해주고 단군조선으로부터 역사발전의 합법적과정을 거쳐 면면히 이어온 우리 민족사를 올바로 정립해주시었습니다. 수령님께서 민족유산을 주체적립장에서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정책을 제시하시고 역사에 묻혀있던 수많은 문화유산들을 새롭게 발굴고증하며 외래침략자들에 의하여 파괴된 유적들을 원상대로 복구개건하도록 이끄시어 선조들이 창조한 문화유산을 민족의 재보로 인민들과 후대들에게 안겨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나라의 역사를 바로잡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올바로 평가하고 해명하시어 정의로운 민족사를 더욱 빛내어주시었으며 선조들의 지혜와 재능이 깃든 문화유산들이 민족의 역사와 혈맥을 이어주는 귀중한 재보로 빛을 뿌리게 하시었습니다. 장군님께서 선군 령도의 의과 바쁘신 속에서도 역사유적들과 명승지들을 찾으시고 민족유산보호사업이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의 얼과 정을 깊이 심어 주는 교양사업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었으며 조상전래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가도록 하여 온 나라에 민족의 넘과 향취가 차넘치게 하시었습니다. 장군님께서 원시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기간 우리 인민이 창조한 문화와 풍습을 보여주는 대로 천력사 박물관인 평양민속공원건설을 발기하시고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어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와 우수한 문화전통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민족의 현대 역사를 찬연히 빛내어주시었을뿐 아니라 반만년의 민족사를 올바로 정립해주시고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떨쳐주신 민족의 아버지, 절세의 애국자, 대승인이십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이어 우리 나라를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세계적인 선진문명국, 통성번영하는 강국으로 빛내어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선조들이 이룩한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유산들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애국사업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민족유산보호에 관한 사상리론을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주체성의 원칙과 역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일관성있게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입니다. 우리는 민족유산보호와 관련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 민족적풍습과 감정정서에 맞게 풀어나가야 하며 민족문화유산들을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적으로 발굴복원하고 보존관리하여야 합니다.

역사유적유물들을 원상대로 잘 보존관리하여야 합니다.

역사유적유물들은 우리 선조들이 투쟁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이룩한 귀중한 유산이며 후세에 길이 전해갈 민족의 재보입니다. 역사유적유물을 잘 보존관리하여야 인민들에게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높여줄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우수한 민족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민족의 역사는 오랬수룩 빛이 나며 역사유적유물은 원상대로 보존될수록 더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역사유적유물들을 해당 사회와 역사적시기의 특성에 맞게 옛모습을 살려 원상대로 보존관리하여야 합니다. 옛수도였던 평양과 개성의 유적유물들을 잘 보존관리하며 다른 지방들에 있는 국보적의의를 가지는 유적유물들을 보존관리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이 깃든 대상들부터 복구복원하여야 하며 유적유물을 개건, 보수관리하는 사업을 년차별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치있는 역사유적유물들을 더 많이 발굴하여 민족문화유산의 보물고고 풍부히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부정하는 허무주의적경향과 유적유물들을 잘 보존관리하지 않고 손상시키는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민족전통에는 우리 민족의 유구성과 우수성, 고상한 정신세계와 고유한 생활체계가 반영되어있습니다.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고 대를 이어 전해오는 가치있는 창조물들과 미술품들을 귀중히 여기고 시대적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민족문화와 예술, 민족풍습을 적극 장려하고 인민들이 민족명절들을 즐겁게 쇠도록 하였으며 민속공원과 민속거리도 건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적향취가 짙게 풍기는 민족음악과 민족무용, 민족미술을 발전시키고 태권도, 씨름을 비롯한 민속체육을 장려하며 유희오락을 하여도 못놓이, 댕치기와 같은 민속놀이들이 많이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족음식과 조선옷을 장려하고 고상한 우리 말과 인사법을 잘 살리며 고려의학과 민족적특색있는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들에 대한 보호관리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예로부터 산고 물맑은 삼천리금수강산으로 불려왔습니다. 금수강산이란 비단에 수를 놓은것처럼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백두산과 금강산, 묘향산, 총석정을 비롯하여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산, 명승지들이 많으며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후세에 길이 전해갈 천연기념물들도 많습니다. 아름다운 명승지들이 착취사회에서는 돈값고 견세있는자들의 유희지로 되어있었지만 인민이 주인으로 된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이 다 인민의 유원지, 문화휴식터로 되고있습니다.

우리는 명승지들의 아름다운 풍치를 동구어주는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돌 하나도 귀중히 여기며 명승지구역에 있는 새나 산짐승들도 적극 보호하여야 합니다.

명승지의 탐승도로와 시설물들을 애호관리하며 명승지들을 더 많이 찾아내어 인민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더해주어야 합니다.

명승지를 보호관리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명승지의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원상대로 보존하는것입니다. 산불과 산림탐벌, 지하자원개발과 병해충, 오수와 공업폐수물로 인하여 명승지가 파괴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역사박물관을 비롯한 역사교양거점들을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와 시대적추세에 맞게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역사박물관과 민속박물관, 민속공원과 민속거리에는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민족적공지와 애국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교육교양거점입니다. 박물관이나 민속거리 같은것을 잘 꾸려놓으면 국가적인 재보가 되는것만큼 이런 교육교양거점들을 꾸리는데 국가적인 관심을 돌려야 하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역사박물관들과 민속공원, 민속거리들을 민족적색채가 살아나게 잘 꾸려야 합니다. 평양민속공원을 애국주의교양의 거점답게 더 훌륭하게 꾸리기 위한 2단계공사를 빨리 완공하며 아직 민속거리를 꾸리지 못한 도들에서는 자기의 특성에 맞게 잘 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역사박물관의 표본이 되고 역사교양거점의 본보기가 되게 세계적수준에서 훌륭히 꾸려야 합니다. 지방의 역사박물관들도 자기 지방의 얼굴이 살아나게 잘 꾸려야 합니다.

박물관의 진열전시를 잘하여야 합니다. 역사유물들의 진열전시는 참관자들이 역사를 인식하는데 편리하게 과학성과 순차성, 생동성과 립체성이 보장되게 하여야 합니다. 역사유물들을 더 많이 전시하여 박물관의 전시내용을 풍부히 하고 역사적시기별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족문화유산들과 역사교양거점들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민족문화유산들과 역사교양거점들을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인민들과 청소년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미술품들을 잘 알고 민족적공지와 애국심을 깊이 간직하며 민족성을 고수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역사박물관과 민속공원, 역사유적과 명승지들에 대한 참관, 견학을 널리 조직하여야 합니다.

지금 민족문화유적들에 대한 참관사업을 잘하지 않고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묘향산에 가면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고 등산로정을 따라 등산을 하면서 역사박물관과 역사유적들도 돌아보면 좋겠는데 그냥 스쳐지나고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대하여 무관심한 표현입니다.

우리 나라의 명승지들과 국보적의의를 가지는 역사유적들마다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거룩한 자욱과 령도업적이 아로새겨져있습니다. 지방사람들이 평양견학을 오면 여러 대상들과 함께 조선중앙역사박물관, 평양민속공원, 모란봉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역사유적들을 참관하도록 하며 사람들이 금강산이나 구월산, 칠보산에 가면 그곳에 있는 역사유적들을 돌아보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에 대하여 잘 알게 되며 동시에 역사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가지게 되고 민족적공지를 더 깊이 간직하게 될것입니다.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민족의 자랑인 천연기념물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민족의 성원이라면 누구나 민족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야 합니다. 지금 적지 않은 일군들이 민족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부차적인 일로 여기면서 이 사업을 뒤에는 미루어놓고있습니다. 일부 시, 군들에서는 역사유적유물들의 보존관리에 관심을 돌리지 않아 귀중한 역사유적유물들이 없어지거나 못쓰게 되고있습니다. 명승지의 풍치를 손상시키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와 미제에 의한 3년간의 전쟁으로 귀중한 민족문화유산들이 무참히 파괴탈당당한것만도 가슴아픈 일인데 지금있는것조차 제대로 보존관리하지 않는것은 민족적자존심의 견지에서 보아도 허용할수 없는 일입니다. 민족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소홀히 하다가는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잃어버릴수 있습니다.

도, 시, 군인민위원회들에서는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들에 역사유적과 명승지, 천연기념물 관리대상을 분담해주어 민족유산에 대한 보호관리를 전근중적운동으로 해나가며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 과학, 문학예술, 출판보도기관들에서는 민족고전에 대한 연구와 번역출판을 잘하고 역사상식도서들을 많이 출판하며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역사유적유물과 민족전통에 대한 소개전시를 널리 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역사유적과 유물을 귀중히 여기고 애호관리하며 민족의 넘을 곳 곳이 이어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각과 해당 성, 중앙기관들에서 역사유적과 박물관, 명승지들의 건설과 보수관리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요구되는 설비, 자재, 자금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역사유적과 명승지들에 대한 참관, 관광을 통하여 번 자금가운데서 필요한 몫을 민족유산보호부문에 돌려 자체로 정상보수관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역사유적과 유물, 명승지와 천연기념물관리사업에 대한 규범법과 규정들을 잘 만들고 인민보안기관을 비롯한 감독통제기관들에서 그것을 어기는 현상들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족유산보호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하여야 합니다.

모든 부문을 과학화하는것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입니다. 민족유산보호부문사업도 과학화하지 않으면 높은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민족유산보호부문에서는 과학연구기관들과의 련계밑에 역사유적과 유물보존관리에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단정색감과 보존처리용시약 같은 필요한 자재들을 국내에서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역사유적과 유물들,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들, 비물질문화유산들을 자료기화하고 그에 대한 정보 교류를 활발히 벌려야 합니다.

조선민족유산보존사를 전문분야의 실력있는 일군들로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과학연구중심,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나라의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중앙지도기관입니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보장할수 있고 민족유산보호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해나갈수 있습니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권능을 높이고 나라의 전반적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정연한 지도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지도국에서는 과학연구기관들, 교육기관들과 협력하여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들을 더 많이 발굴수집하고 그에 대한 심의 등록, 평가사업을 잘하며 중앙과 지방들에서 진행되는 비물질유산보호사업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 하여야 합니다. 지도국에서는 중앙과 지방에 조직되어있는 비상설민족유산보호위원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속에서 가치있는 역사유물들을 기증하는 애국적소행에 대하여는 소개선전도 하고 평가도 해주어야 합니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는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사업도 벌려나가야 합니다. 지도국에서는 학술대표단을 다른 나라들에 보내어 견문을 넓히도록 하고 다른 나라 역사학자들과 유산부문 인사들과의 공동연구, 학술토론회도 조직하며 대표단을 초청하여 우리 나라의 역사유적과 명승지들에 대한 참관도 시켜야 합니다. 고구려벽화무덤과 개성시의 역사유적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는데 우리 나라의 우수한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우리 당의 민족유산보호정책을 대외에 소개선전하는데도 좋을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하나의 피줄을 이어 받은 단군의 후손들입니다. 온 겨레가 민족중심의 립장에서 역사문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며 민족문화유산과 관련한 학술교류도 많이 하여 단군조선의 역사를 빛내이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입니다.

민족유산보호부문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민족유산보호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민족유산보호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민족유산보호부문에 깃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과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깊이 새기고 순결한 량심과 성실성,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맡겨진 사업을 잘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족유산보호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가운데는 외진 산골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알아주건말건 자기 초소를 믿을직하게 지켜나가는 애국자, 숨은 공로자들이 많습니다. 당조직들에서는 이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의 성과와 공로를 공정하게 평가해주고 적극 내세워주며 결된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 민족유산보호부문 일군대렬을 잘 꾸려주어야 합니다. 민족유산보호부문에 당에 충실하며 전문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고 책임성이 높은 일군들을 배치하며 부족되는 연구사, 강사, 기술자, 기능공들을 제때에 보충해 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들에서는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민족사적업적을 빛내이는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이 부문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모든 일군들은 당의 민족유산보호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옹고수하며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더욱 빛내어나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구성공작기계공장 1가공직장 노동자 백문규동무의 소행에 대한 각계의 반향

혁명적신념과 의리를 더 굳게 간직하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이란 신념이 없으면 혁명가가 될수 없습니다.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하고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할수 있습니다.》

기쁨 때나 괴로움 때나 변함없이 한 모습으로 당과 피줄을 잇고 꽃피어 살아온 구성공작기계공장 1가공직장 노동자 백문규동무의 삶은 각자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신익주시당위원회 부부장 오경철동무는 누가 보지말건, 알아주지말건 그 어떤 평가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지난 55년 동안 당이 맡겨준 초소를 굳건히 지켜온 백문규동무의 삶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혁명가의 신념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실천으로 보여주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백문규동무야말로 신념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말할수 있다. 지난 시기 백문규동무는 아버지의 해방전 경력이 몇몇이 못 한것으로 되어있을 때 마음속의 고통도 없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창기 어려운 정신적고통을 꽃피어 이겨내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와 어느때보다 더 정열적으로 일해나갈수 있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기 때문이었다. 전정의 회화속에서도 변함없이 수업증을 울려주던 못 잊을

학창시절의 선생이며 중학교를 졸업하고 전문학교학생이 된 자기를 남먼저 축하해주던 고향 마을의 당포위원장(당시) 그리고 자기를 손잡아 이끌어주던 다양한 공장사람들...
이 모든 추억을 더듬는 그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잡은것은 언제나 자기를 따르며 안아 보살피는 어머니당의 고마운 품에 대한 생각,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이었다.

피로울 때도, 기쁨 때도 언제나 자기를 지켜주는 어머니당이 있는 한 이 세상 두려운것이 없으며 오직 그 품에서만 인생의 모든 영광과 행복이 담보된다는 참된 삶의 진리를 가슴깊이 간직하였기에 백문규동무는 머나먼 인생길을 아름답게 수놓아올수 있었다.

불에라도 몸을 버리지 않는 참애와 같은 신념을 지닌 백문규동무의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언제나 당의 사상사업원칙을 베고 죽는 진배배기혁명가, 참된 사상사업원이 되겠다. 이와 함께 시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기 평소자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사상사업원이 되겠다. 이와 함께 시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기 평소자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사상사업원이 되겠다.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중앙조종실 당포비서 전명일동무는 인생의 먼길을 걸은 삶이 새겨놓은 백문규동무에 대한 기사는 대중을 교양하고 그들을 이끌어나가는데서 당포비서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였다. 《사람이 한생을 사는데 제일 중요한게 무엇인가. 재산, 명예, 학식?...

하지만 그 모든것에 앞서 제일 귀중한것이 신념이 아닐까.》 이것은 백문규동무가 아버지 문제로 하여 고민할 때 그를 찾아와 일깨워주던 당포위원장(당시)의 말이다. 항일혁명선열들과 시대의 영웅들이 지나갔던 백철불굴의 신념에 대하여 백문규동무에게 끝없이 들려주는 당포위원장의 이야기는 잠시나마 나약해졌던 그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그가 오직 당만을 믿고 변함없이 한길을 걸도록 걸음걸음을 이끌어주는 당포위원장의 모습은 저의 가슴속에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다시금 되새겨지게 하였다.

광범한 군중을 당과 현연의 정으로 이어주고 그 어디에서나 로동당민심의 웨침소리가 높고 울리도록 하는데서 세포비서들의 역할은 매우 크다. 언제나 자기 집보다 동지들과 군중을 더 우선한 혁명적신념과 의리, 순결한 양심을 지니고 생의 자욕자욕을 빛내어나가겠다고 하

는 어머니가 되며 중앙조종실의 모든 종업원들을 백문규동무

처럼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사는 불사신으로 키워나가는 데서 밑거름이 되었다.

북창화학발전연합기업소 청년직장 작업반장 리인산동무는 백문규동무는 그 어떤 평가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깨끗한 양심을 담은 당과 수령을 받들어가는 참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순박이나나 입신상의 문제를 놓고 마음속통증을 일으킬만한 자기의 잘못을 당조직앞에 솔직하게 터놓는것만 보아도 그가 지닌 백문규동무의 마음을 잘 알수 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서도 평가를 바라지 않았으며 당을 받드는 마음에 티가 없었세라 스스로 순간순간 양심의 총화해보고자 자신을 제척질하곤 하였다.

그가 오직 당만을 믿고 변함없이 한길을 걸도록 걸음걸음을 이끌어주는 당포위원장의 모습은 저의 가슴속에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다시금 되새겨지게 하였다.

광범한 군중을 당과 현연의 정으로 이어주고 그 어디에서나 로동당민심의 웨침소리가 높고 울리도록 하는데서 세포비서들의 역할은 매우 크다. 언제나 자기 집보다 동지들과 군중을 더 우선한 혁명적신념과 의리, 순결한 양심을 지니고 생의 자욕자욕을 빛내어나가겠다고 하

는 어머니가 되며 중앙조종실의 모든 종업원들을 백문규동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기술로 발전하고 과학기술로 살아가는 시대이며 실력전의 시대입니다.》

구성공작기계공장 1가공직장 노동자 백문규동무의 투쟁이 야기를 담은 당포의 기사를 읽고 각자의 로동계급도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승진자동차연합기업소 현대화직장 보령공 리정중동무는 백문규동무에 대한 이야기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로동계급의 참모습을 보았다고, 기사를 읽을수록 로동계급의 긍지와 영예감을 가슴부듯이 느끼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특히 오랜 기간 높은 실력과 실천력으로 당을 받들어온 주인공의 투쟁이야기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런런 단신 당과 피줄을 잇고 삶을 빛내어온 구성공작기계공장 1가공직장 노동자 백문규동무에 대한 이야기가 각자 로동계급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누가 보지말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생을 빛나게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일터를 당이 맡겨준 영예로운 초소로 여기고 한생을 변함없이 살아온 백문규동무의 소행에 감동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렇게 계속하였다. 백문규동무의 한생은 평범한 노동자의 인생이다. 그러나 결코 평범하게만 산 로동자가 아님을 느끼게 된다. 그가 55년간 해마다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한 사실도 그러하지만 40여명의 고급기능공들을 키워내고 50여건의 기술혁신안과 10여건의 창의 고안을 생산해 내어온 실적이 이야기하면서 주인공과 같이 높은 기술기능을 소유한 다재다능한 실력가가 될 결심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백문규동무처럼 자기 맡은 일 에 막힘이 없고 기술혁신안, 창의 고안을 척척 내놓는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물론 오랜 로동생활과정에 일 정하게 기술기능수준이 높아지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기능이 로동년한과 꼭 정

신만만한 실력이 안받침되어야 한다는것을 이런 계기를 통하여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백문규동무처럼 신념의 기능을 역척같이 세우고 높은 실력과 실천력으로 조국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는 참된 로동계급이 되겠다. **룡성기계연합기업소 4기계직장 보령공 전철충동무는 백문규동무에 대한 기사를 읽고 커다란 충동을 받는데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주인공과 같이 높은 기술기능을 소유한 다재다능한 실력가가 될 결심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백문규동무처럼 자기 맡은 일 에 막힘이 없고 기술혁신안, 창의 고안을 척척 내놓는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물론 오랜 로동생활과정에 일 정하게 기술기능수준이 높아지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기능이 로동년한과 꼭 정

비례한다고는 말할수 없다. 고급한 기능일수록 풍부한 경험과 함께 해박한 지식, 깊은 사색이 안받침되어야 한다. 이렇게 높고 높게 수많은 기술혁신안과 창의고안을 내놓은 백문규동무의 지식의 저장고, 사색의 세계가 얼마나 폭넓고 깊어 있는것인가를 가늠할수 있다. 우리 공작기계도 꾸준하고 이악하게 자기의 기술기능수준을 연마해나가며 선진과학기술을 습득해가는 로동자혁명가, 창의고안명수들이 수없이 많다.

누구나가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 단위의 생산 토대를 더욱 현대화하는 사업에 이바지해나간다면 강성국가건설 위업은 더 빨리 다그쳐질것이라고 생각한다. 백문규동무의 모범을 따라배워 로동계급의 슬기와 본래를 남김없이 펼쳐나가겠다. **장 정 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수단민족대회당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하르름

수단 민족대회당 위원장

오마르 하산 아흐마드 알 바쉬르각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수단민족대회당 제4차 총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대회에서 당신이 위원장으로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당신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이번 대회에서 당신이 수단민족대회당 위원장으로 다시 선거된것은 당신에 대한 귀 당지도부와 전체 당원들의 높은 신뢰와 기대의 표시로 됩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사자의 친선협조관계가 반제자주를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을 강화하고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 103(2014)년 10월 29일

평 양

김정일대원수님 회고위원회

방글라데슈에서 결성

김정일대원수님 회고위원회 결성식이 22일 방글라데슈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에는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라데드 칸 메는, 방글라데슈공산당 중

앙위원회 총비서 씨에드 아부 자파르 아흐메드, 방글라데슈인민혁명 위원장 가리브 네와즈,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영. 갈물 후다, 방글라데슈 선군정치연구소 위원장 영.

자한기르 칸을 비롯한 정당, 단체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가리브 네와즈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진보적정당, 단

체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단체, 주체사상연구조직 등에서 위대한 명도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는 각종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할 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연풍과학자휴양소 종업원들의

철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연풍과학자휴양소 종업원들의 철기모임이 29일에 진행되었다.

차별을 평안남도당위원회 비서, 연풍과학자휴양소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초당비서 리규철의 보고에 이어 소장 리영욱, 부원들인 김명민, 정금혁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경치 아름다운 연풍호기슭에 과학자들을 위한 휴양소를 일떠세우 주시고 선군혁명명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완공된 연풍과학자휴양소에 사랑의 자욱을 새기신

데 대하여 감격에 넘쳐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휴양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당의 건축미사상의 요구대로 건설을 잘할것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풍과학자휴양소는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편리성이 철저히 구현된 휴양소, 조경화, 예술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휴양소라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휴양소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법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넘칠을 안으시고 우리 인민의 꿈과 이상을 활짝

꽃피워주시며 과학자들에게 이 세상 만물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휴양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제시하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의 과학기술시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 명령도 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원수님을 순결한 양심과 의리로 충성 다해 모시며 위대한 김정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침으로,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종업원들은 당의 높은

뜻을 받들어 건물들에 대한 관리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며 과학자들에게 대한 봉사활동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대로 갈래 갈래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의 하늘같은 은정이 솟아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연풍과학자휴양소를 훌륭히 보존관리하며 휴양소를 수리화, 원리화, 파수원화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이 길이 빛나도록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쁘라하

체스코공화국 대통령 밀로슈 제만각하

나는 체스코공화국 국경전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친선적인 귀국의 발전과 번영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 103(2014)년 10월 28일 평 양

튀르키예공화국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간각하

나는 튀르키예공화국 국경전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친선적인 귀국의 발전과 번영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 103(2014)년 10월 29일 평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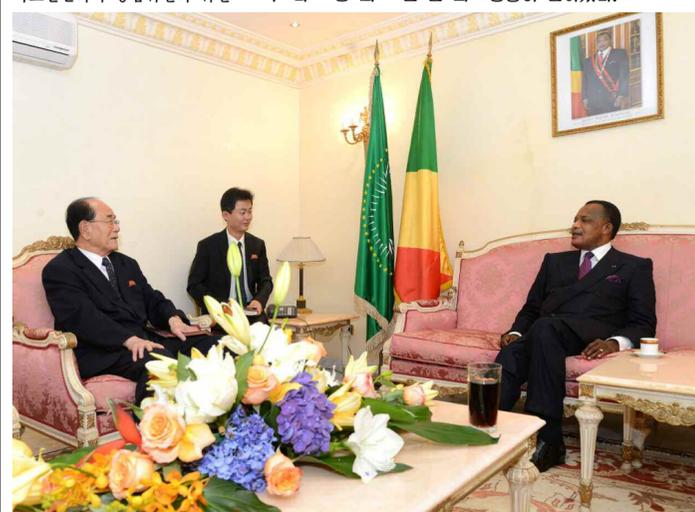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콩고공화국 대통령 데니 싸수 느끼쏘각하

회담

【쁘랭드 노아르 10월 28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 콩고공화국을 공식친선방문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장 김영남동지는 28일 지방도시 뽀엥트노아르에서 콩고공화국 대통령 데니 싸수 느끼쏘각하와 회담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강하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김영남동지에게 김영남동지께서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 것을 부탁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자기 나라의 정세를 통보하고 국제정세와 관련한 견해를 나누었으며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며 대량 문제와 불확실성들을 해결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여기에는 우리측에서 강하국 보건장, 공석용 외무성 부상, 서길부 대외경제성 부상, 최철수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임시대리대사, 기타 수행원들이, 상대측에서 앙드레 오메리 이 부 국외 상인 의장, 주스명 폼바 국외 하인 의장, 플로랑은 쟈바 국무성 겸 로동, 사회안전성, 아두기 대통령의교고문, 국회의와 외무성의 관계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은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콩고공화국사이의

부문별 회담 진행

【브라자빌 10월 28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콩고공화국사이의 부문별회담이 28일 브라자빌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강하

회담에서 쌍방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는 조선과 콩고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이익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봉주 총리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정형 현지료해

박봉주대총리는 조선속도창조의 거센날 불길속에서 현지개벽하고있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총리는 세포지구의 여러 전투장들을 돌아보면서 건설상태와 자체보장정형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당의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는 건설자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현지에서 관계부문 일군들의 회가 진행되었다. 협의의에서는 포진별도양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지력을 높이고 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 품과 기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강조되었다.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건설자재와 설비를 제때에 보장하고 교육도시인해공장을 돌아보고 협의의회를 열려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제 집안의 인권허물부러 바로잡아야 한다

아마 이 지구상에서 미국만큼 《인권》에 대해 목러지게 부르짖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마치도 저들이 《인권 재판관》이라도 되는듯이 해마다 《인권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여 이 나라, 저 나라의 《인권허물》을 들추어내며 혼신 하려 들며 압박을 가하고있다. 세상에 똑 저들밖에 없는 것처럼 놀아내는 미국의 행위는 그야말로 오만방자하기 그지없다.

숙담에 돌아서서 제 그림자를 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남의 흉을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의 허물부러 돌이켜보라는 말이다. 신봉하도 술한 인권허물을 안고있는 미국에 어울리는 말이다.

지난 8일 미국의 미주리주 쏘트 루이 스시에서 마이어이라는 흑인청년인 백인경찰이 쏜 10여발의 총탄에 맞아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경위에 대해 경찰측은 《청년이 먼저 총을 쏘았다.》고 변명하였지만 당시 그가 무방비 살해되었다는 것이 피해자 가족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흑인들에 대한 백인경찰의 살인만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얼마전에도 이 주의 퍼시슨시에서 한 흑인청년인 백인경찰의 총에 맞아 사살되고 황의시위에 떨쳐나선 주민들에게 경찰들이 총을 겨누고 최루탄과 연막탄을 사용하면서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이런 속에서 또다시 일어난 흑인사살사건은 미국이야말로 인종과 피부색 때문에 차별과 멸시를 당하고 언제 불어아줄지 모르는 공포에 떨어야 하는 엄청난 인권유린국가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고이다.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의 《인권실태》에 대해 접수를 매기며 혼신질을 하던 미국은 이번엔 제 집안에서 편이러 타친 인권유린사건으로 세계의 면전에서 망신을 깨며 당하고 웃음겨려가 되었다.

미국은 《인권문제》를 놓고 다른 나라를 시비할 처지에 있지 못하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공인하는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가이다.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권리인 로동의 권리마저 빼앗긴 실업자들이 득실거리고 집없는 사람들이 한자에서 밤을 지새며 죽어가고있는 나라, 살인과 강탈 등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역시 미국이다.

부리꼬이는 인종차별의 후과는 지금도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교육, 법적보호, 보건, 선거 등에서 소수 인종 및 민족들의 권리가 반복해서 침해당하고있다.

교육부문 실태만 놓고보아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프리카계와 라틴아메리카계 학생비율은 백인들에 비해 훨씬 낮다. 미국의 해당 당사자들 누구도 각급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출신배경에 따르는 차별적인 요소가 의연히 존재한다고 인정하고있다.

미국에서는 소수 인종 및 민족주민들이 범죄의 주요피해자로, 사법당국의 편견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흑인을 위주로 한 감수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시험 등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강행되고 있으며 백인이 아닌 인종들에 대한 경찰들의 인권유린행위가 계속되고있다. 이번엔 편이러 일어난 흑인들에 대한 백인

경찰들의 사살사건과 그에 대한 주민들의 평화적인 항의행동을 가혹하게 진압한 것 등은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례이다.

인종차별은 영원히 없앨수 없는 미국의 고질적인 악습이다. 오죽하면 국제대사령이 세계적으로 가장 엄중한 《5대 인권유린대상》의 맨 첫자리에 미국을 놓았겠는가. 풀음대로 풀은 미국사회의 인권실태는 날담이 드러났다.

인권유린의 전과자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사상과 제도, 종교와 문화가 다르다고 하여, 일련의 나라들이 자취를 중시하고 고유한 사회정치체도를 발전시켜나간다고 하여 《인권유린》의 감투를 씌우고 《동맹국》들에서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목인비호하고있다. 이것은 명백히 이중기준이며 인권유린을 조장하고 전파하는 범죄행위이다.

인권유린의 왕초는 바로 미국이다. 자국내에서는 물론 세계도처에서 최대의 인권유린행위를 감행하고있는 미국은 인권에 대해 말할 체면도 자각도 없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적면 《인권》을 일고이고 《인권문제》를 정치적, 언론화, 국제화하며 다른 나라들에 압박을 가하고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국제무대에 서 있지도 않는 우리의 《인권문제》를 계속 채택시키지 못하게 놀아내고있다.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의 수급사관들이나 너도나도 명백히 이중기준이며 우리의 《인권상황》이 이렇소처럼 소홀히 신성한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훼손하고 유엔에까지 상정시켜 문제시하려 하고있다.

미국은 도대체 참다운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인권보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나 하고 그따위 나발을 붙여내고있는가.

미국이 명백히 말해주건대 우리 공화국에서 인민들이 누리되고있는 것이 바로 참다운 인권이다. 우리 사회는 인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람중심의 사회이다. 인간이 향유할 모든 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으로, 나라의 어길수 없는 국책으로 되고있는 것이 우리 공화국이다. 이에 대해서는 세계가 알고있으며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런데 미국은 저들의 한심한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인권대중들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 대해 아무 소리나 망망 늘어놓으며 헐뜯고있다. 그야말로 제발 구린줄 모르고 남을 시비하는 머저리들이 하는 행동과 같다.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조종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과 《인권》의 각관을 들고 감행해 온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언제나 잊지 않고있다. 이것을 언 제든지 결산하고 그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려는 우리의 원칙적결정은 확고불동하다. 미국이 《인권》공세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 보려는 것은 허황한 망상의 극치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꺼들며 내정간섭책동에 매여달리다가 쓰디쓴 고배를 맛보기 전에 제 집안의 인권허물부러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만이 그래도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체면을 유지할수 있는 길이다.

리 학 남

여러 나라에서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책동을 규탄

네팔공산당(광스-메니주의), 네팔로동자농민당, 네팔조선친선협회, 네팔주체연구소, 네팔조선정치지지협회, 주체사상 및 선공정적 연구 네팔기자협회, 네팔중국기자기자주국, 네팔자력개발연구소, 조선통일촉진네팔위원회가 17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인권책동을 규탄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유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문제》를 정치화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극단적인 시도로 하여 악화되고있는 조선반도정세를 주의깊게 지켜보면서 일부 유엔성원국들의 다른 유엔성원국들에 대한 적대행위를 들고 감행해 온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언제나 잊지 않고있다. 이것을 언 제든지 결산하고 그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려는 우리의 원칙적결정은 확고불동하다. 미국이 《인권》공세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 보려는 것은 허황한 망상의 극치이다.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조종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과 《인권》의 각관을 들고 감행해 온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언제나 잊지 않고있다. 이것을 언 제든지 결산하고 그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려는 우리의 원칙적결정은 확고불동하다. 미국이 《인권》공세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 보려는 것은 허황한 망상의 극치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꺼들며 내정간섭책동에 매여달리다가 쓰디쓴 고배를 맛보기 전에 제 집안의 인권허물부러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만이 그래도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체면을 유지할수 있는 길이다.

우리는 유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문제》를 정치화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극단적인 시도로 하여 악화되고있는 조선반도정세를 주의깊게 지켜보면서 일부 유엔성원국들의 다른 유엔성원국들에 대한 적대행위를 들고 감행해 온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언제나 잊지 않고있다. 이것을 언 제든지 결산하고 그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려는 우리의 원칙적결정은 확고불동하다. 미국이 《인권》공세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 보려는 것은 허황한 망상의 극치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꺼들며 내정간섭책동에 매여달리다가 쓰디쓴 고배를 맛보기 전에 제 집안의 인권허물부러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만이 그래도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체면을 유지할수 있는 길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꺼들며 내정간섭책동에 매여달리다가 쓰디쓴 고배를 맛보기 전에 제 집안의 인권허물부러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만이 그래도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체면을 유지할수 있는 길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꺼들며 내정간섭책동에 매여달리다가 쓰디쓴 고배를 맛보기 전에 제 집안의 인권허물부러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만이 그래도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체면을 유지할수 있는 길이다.

리 학 남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무기한 연기한 괴뢰패당의 특대형반민족적범죄행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괴뢰패당이 미국과 공모협력하여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무기한 연기한 괴뢰당에 29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 1077호를 발표했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은 위상론에서 진행된 46차 연례인보통회의회에서는 미국이 2015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괴뢰패에게 넘겨주기로서 하였다던 것을 조선반도지역의 안보환경과 괴뢰군의 핵심군사능력이 갖추어질 때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던 미국남조선 《연합군사령부》와 미210화력사단 등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울과 한강이북 지역에 계속 남겨두며 미남조선 《군사정보보양방안》을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를 놓고 상건과 주군간에 또다시 이런 홍경판이 벌어질때는 미국과의 침략적결약을 강화하여 명줄을 부지하며 북침전쟁과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더욱 발악적으

로 매달려려는 괴뢰패당의 흉심과 괴뢰들을 틀어쥐고 남조선을 군사적교두보로 하여 대조선침략정책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실력을 시험해보려는 미국의 범죄적지도가 련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로 말하면 리승만연대가 미국의 사육마에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가 영웅한 조선인민군의 반격에 의해 대참패를 당하게 되자 그 를 만회하고 북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 보려고 전쟁과 중인 1950년 7월 미국에 군용수원 을 통해서 넘겨준것으로 하여 산생된것이다.

괴뢰적자들이 군용수원 을 미국산전정에 팔아먹음으로써 남 조선인민들은 장정 64년간이나 미국의 침략정책의 희생물이어 지 해어질수 없는 지옥과 불행 을 강요당하여왔다.

남조선인민들은 그 수치를 벗어나시기 위해 오래동안 줄기찬 투쟁을 벌여왔으며 6.15 시대에 이르러 마침내 미국을 부르 버린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까지 넘겨받는다는 답변을 받아왔다.

그러나 친미주주 리명박역도 가 집권하여 그것을 2015년

까지 연기하였으며 현 《정권》에 들어와서는 집권자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그것을 또다 시 무기한 연기한 처하의 매 국적적행위를 거머쥐었어 감행 하였다.

괴뢰패당이 미국상건과 결합 하여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무기 한 연기하는 불음은 벌린것은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 내는 참수수 없는 민족적수치이 며 용납될수 없는 특대형반민족 적범죄행위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무기 한 연기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간섭이 영구화되고 식 민지 지배와 예속에 심화되게 되 는데 반할때는 남조선주민 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암암적으로 하는 괴뢰패당의 추악한 사대 매 국행위야말로 만사함을 경악케 하여왔다.

이제 새 세상 남조선괴뢰들처럼 의외에 아무불중하며 군사주 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고 북한 에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 세계가 지배와 예속을 벗 어나고 자치의 길로 나가고있 는 때에 반할때는 남조선주민 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암암적으 로 하는 괴뢰패당의 추악한 사대 매 국행위야말로 만사함을 경악케 하여왔다.

이제 새 세상 남조선괴뢰들처럼 의외에 아무불중하며 군사주 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고 북한 에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제 새 세상 남조선괴뢰들처럼 의외에 아무불중하며 군사주 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고 북한 에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제 새 세상 남조선괴뢰들처럼 의외에 아무불중하며 군사주 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고 북한 에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제 새 세상 남조선괴뢰들처럼 의외에 아무불중하며 군사주 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고 북한 에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스라엘의 경로강탈책동을 단죄

유럽동맹이 22일에 발표한 문건에서 이스라엘의 경로강탈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문건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역의 약 1 000ac(에이커)에 달하는 토지를 병합하는 등 경로강탈책동을 계속 매여달 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행위가 팔레스타인국가창설을 위협에 빠뜨리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문건은 유럽동맹이 1967년 중동전쟁중국의 경제선단을 인정한다고 강조하였다.

딜마 바나 로우셰프 브라질 대통령으로 재선

브라질에서 딜마 바나 로우셰프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되었다. 그는 28일에 있는 대통령선거

에서 과반수의 지지표를 받고 두 번째 임기를 맡게 되었다. [조선중앙통신]

활발해지는 우주개발활동

우주 개발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있다.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주에로의 진출은 많은 나라들의 국가발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나의 국제적 추세로 되고있다. 특히 우주산업의 경제적 이익이 대단히 크므로 하여 우주산업이 본격화되고있는 가운데 우주경제는 세계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부문으로 간주되고 있다.

우주산업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이익은 대단히 크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우주항공기술분야에서 8 US\$의 수입을 얻을수 있고있다 한다. 통신 및 위성추적, 우량 자원물체, 기상관측, 자원탐사를 비롯한 많은 분야가 우주산업에 의거하고있다. 실제로 어느 한 나라에서 우주산업에 의해 파생되는 산업규모는 이미 200억USS에 달한다고 한다. 자력에 의한 위성방송, 텔레비전교류 등 《우주학교》를 통하여 수천만명이 교육을 받을수 있고 자원탐색을 이용하여 광물과 지질, 철도, 다리 등 부문의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수산업USS의 지위를 절약하고 수업을 늘릴수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무한대 한 우주경제의 잠재력을 놓고 많은 나라들이 이

를 최대로 리용하려 하고있으 며 세계적인 우주개발경쟁은 날을 따라 더욱 치열해지고있다. 우주 개발을 리용한 경제 분야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있는 조건에서 우주개발을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여기에 국가적 힘을 넣고있다.

로씨야가 우주선전군의 지위를 고취하려 하고있다.

우주분야에서 높은 발전잠재력을 가지고있는 로씨야는 자기의 우주개발을 적극적으로 실현해나가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로씨야는 통신위성, 중계 위성, 생물 위성, 기상 위성 등 수많은 위성을 발사하였다. 지난 6월에는 33개의 소형위성을 운반로켓에 탑재하여 발사하였다. 로씨야는 세계적으로 운반로켓발사수에 있어서 첫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1월초 인디아는 국산 기술을 리용하여 1 982kg 의 중량중성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인디아우주연구기구 는 이번 발사가 유인우주비행과 대서 우주개발을 실현하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인디아는 처음으로 만든 화성탐사선 《망갈리안》의 화성계도 진입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인디

아는 미국, 유럽동맹, 로씨야에 이어 네번째로 화성에 우주비행선을 보낸 나라로 되었다. 신흥경제국으로 떠오른 인디아가 2년以内に는 우주 과학자를 가지고있는 사실에 서방세계가 경제심을 감추지 못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이리하여 지난 2월 2개의 국산대륙적위성을 공개한데 이어 가까운 앞날에 3개의 새로 국산세위성을 궤돌릴 준비가 다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만큼 발사는 자기 나라가 위성발사체 들을 비롯하여 모든 항공우주 기술을 자체로 개발하였다고 하였다.

유럽동맹은 지난 4월 수산업USS규모의 새로운 지구관측위성에 따른 첫 위성을 발사하였다.

싱가포르가 6월말 인디아 우주로켓들을 통해 자국의 첫 우주위성을 발사하였고 에일 트와 푸르기에가 바이코누르 우주발사장에서 통신위성인 운반로켓에 탑재하여 발사하였다.

미국이 전지구위지측정체계를 다른 나라들을 정치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는데 대응하여 독자적인 항법위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나라별로, 지역별로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24일 정부는 이 나라의 포괄적경제개발의 동등성을 추구해 줄에 관한 법을 채택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동안에 회사의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될것이라고 한다.

이등도산 운영 방목태수에서 최근 주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등도서관을 운영 하고있다.

같은 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력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인디아와 네팔이 21일 전력생산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할때 관한 협정을 체결 하였다.

한편 최근 만마와 브루네이는 두 나라사이에서 사중면제 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동생산증대노력 철폐에서 동생산을 늘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영국의 BBC 방송을 중지

프랑스정부가 24일 자기 나라에서 영국 BBC방송을 중지시키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이에 앞서 23일 프랑스공화국 회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